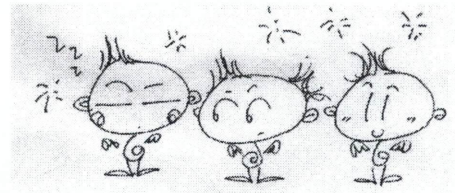


화장실신문



14대 총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본종은 충돌!

화장실 신문 3호 (2002.4.1)

안녕하세요, 14대 총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본종은 충돌!' 입니다. 벌써 4월이네요, 이제 슬슬 과목마다 레포트들이 붙어오는 시기이네요, 이제 슬슬 벚꽃이 피기 시작하구요, 가끔 벚꽃 구경하느라 수업을 빠지는 친구들도 주위에 하나씩 등장하겠지요?^^ 연세인 여러분 모두 행복한 4월을 보내세요.



기본종은 충돌!

4월을 맞이하면서 총학생회에서요,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드디어 새단장을 끝냈답니다. 웹진으로 다시 태어난 14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주소는 작년과 같은 www.ysfem.or.kr 다 아시죠?^^ 모르셨던 분들도 제 머리에 쏘옥 넣어주세요~~ 웹진인 만큼 다양한 읽을 거리와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 떡볶이 수다에 담긴 기획 특집, 칼럼도 만나실 수 있구요,

신나는 여자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유쾌한 걸 신나는 여자를 만나다) 동영상 인터뷰도 보실 수 있답니다. 기본 종은 홈페이지에 많이많이 들어오세요 ^^

3월 떡볶이 수다는 보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마초맨에 대한 이야기, 유지나 교수의 안토니아스라인 이야기 등이 실렸어요. 매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새로운 이슈들로 여러분을 찾아갈 떡볶이 수다, 기대해주세요. 참조! 여학우들끼리 떠나는 7만원 여행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떡볶이 수다에서 7만원을 제공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 총학생회 홈페이지 www.ysfem.or.kr에서 확인하세요!

나왔다! 뽕!



이번 화장실신문에서는 일상정치국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상정치국은 여학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때로 과연 학생을 위한 공간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요, 가끔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일들도 있구요. 일상정치국에서는 여학우 여러분들에게 학교가 보다 편한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생긴 광복관의 여자화장실에는 생리대 자판기가 없어요.

14대 총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본종은 충돌!'

그러면 일상정치국은 법대학생회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학생복지위원회에 설치를 부탁한답니다. 화장실신문에서 화장실에 문고리가 고장났어요, 전등이 꺼졌어요, 이런 의견이 나오면 어떤 단대에서 나온 애 기인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하구요. 한 상대 여학우가 상대라고 말해준 덕분에, 지금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화가 나는 일도 생기곤 하지요. 지금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놓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사실 의대의 건물에는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지고 말았어요.

의대에서 생리대 자판기가 없어진 이유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미관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학우들이 보기에든 미관상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오는 손님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편리한 공간이어야 하구요. 학우들의 눈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화장실신문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 주셔도 좋아요. 학우들의 눈에, 여학우들의 눈에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늘 편하게 의사소통하고, 함께 노력하고, 학교측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개.시.판.

총여

(학생회관 3층에 오시면 총여학생회실을 찾을수 있어요~)